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1년
1월 5일
(수요일)

대한매일신문



“바른의정·열린의정 실천”

강북구의회, 시무식 신년사 메시지 전해

이금연 기자 /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시무식 행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새로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유군성 강북구의회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 “새

해에도 소통과 화합을 의회운영의 가장 소중한 좌표로 삼고 강북구의회가 사랑과 신뢰가 싹트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2011년도에도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를 목표로 구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새롭게 변화하며 발전해갈 것을 다짐하며 힘찬 의정활동의 뜻을 올렸다.

시민일보

“바른 의정·열린 의정 실천” 강북구의회 시무식서 다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가 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시무식 행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새로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4일 구에 따르면 유군성 강북구의회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

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 “새해에도 소통과 화합을 의회운영의 가장 소중한 좌표로 삼고 강북구의회가 사랑과 신뢰가 싹트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2011년도에도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를 목표로 구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새롭게 변화하며 발전해갈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수도권일보

시무식과 함께 의정활동 시작

강북구의회

강북구의회는 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시무식 행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새로운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다.

유군성 의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신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해가 될 것”을 다짐하고 “새해에도 소통과 화합을 의회운영의 가

장 소중한 좌표로 삼고 강북구의회가 사랑과 신뢰가 싹트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2011년도에도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를 목표로 구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새롭게 변화하며 발전해갈 것을 다짐하며 힘찬 의정활동의 뜻을 올렸다.

/전승원기자 wsj@sudokwon.com

시정신문

강북구의회, 도시재생사업 특강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구립 23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2층 제1위원회실에서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다.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권대중 교수의 강의로 2시간 동안 실시된

이번 특강은 △도시재생산업의 기본이해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 낙후된 지역이 많은 강북구 현실에 맞게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의정활동은 물론 구의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외에도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북구의회는 구립 23일 의회 2층 제1위원회실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다.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국수나눔봉사회’ 회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표창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급자,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칼국수 및 잔치국수를 제공,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을 치하,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수상자로는 번2동 황혜자 씨, 수유2동 정경돌 씨 등 총 11명이다.

강북구의회 의장 유 군 성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강북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자세로...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제6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 구현을 목표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원 당시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 유일하게 4당 체제로 구성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14명의 의원들 모두 여야를

떠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원 구성을 마무리 하여 대과 없이 의회가 운영되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활동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여 다양한 구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민에게 불편부당한 사례를 발굴하

여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34만 강북구민의 의지를 의회에 모아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정책 대안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미나,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잘하고 있는 일은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대안제시에도 노력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셨을 당시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자세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대변화와 구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정책의 산실, 지혜의 보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신문

서울일보

'정책의 산실, 지혜의 보고되는 해로'

■유군성 의장(강북구의회)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강북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제6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 구현을 목표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민생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활동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민에게 불편부당한 사례를 발굴하여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34만 강북구민의 의지를 의회에 모아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



립이 아닌 정책 대안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미나,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잘하고 있는 일은 더욱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대안제시에도 노력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셨을 당시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자세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대변화와 구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정책의 산실, 지혜의 보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의 정치 모습 꾸준히...

강북구의회 의장 유군성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제6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바른 의정,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 구현을 목표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개원 당시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 유일하게 4당 체제로 구성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14명의 의원들 모두 여야를 떠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원 구성을 마무리 해 대과없이 의회가 운영되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실생활에 직결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여 다양한 구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으며, 구민에게 불편부당한 사례를 발굴해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34만 강북구민의 의지를 의회에 모아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정책 대안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미나, 비교시찰 등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잘하고 있는 일은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대안제시에도 노력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셨을 당시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자세로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대변화와 구민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는 정책의 산실, 지혜의 보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신문

강북구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구립 27일 오후 3시 강북구청 4층 강당에서 열린 '2010년 강북구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 '1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